

“제휴카드와 다르다”… 브랜드 내세운 ‘PLCC’ 전성시대

〈상업자표시 신용카드〉

PLCC로 비용 절감·돌파구 모색
기준 제휴카드 재정비·단종
제휴사 검증 강화 목소리도

카드사들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
LCC)를 통한 수익 다각화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현대카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한 PLCC는 카드 전면에 제휴 브랜
드를 내세워 해당 브랜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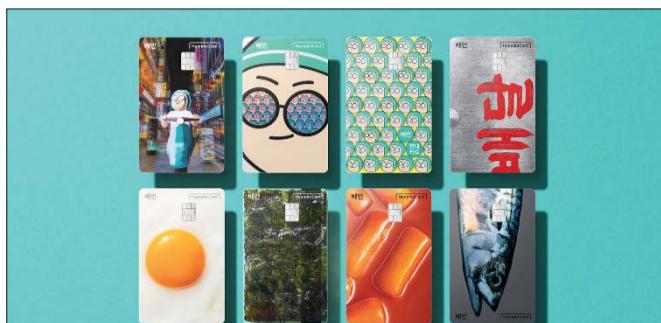
전통적인 제휴카드와 비교했을 때 브
랜드 특화 혜택에 더 집중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기존 제휴카드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공동으로 마케팅 및 영업을 진행해 비
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소위 ‘알짜 혜택
카드’로 소문나 일부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몰리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더러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PLCC의 경우 카드사는 발
급·결제를 맡고, 제휴사는 마케팅과 혜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위버스컴퍼니와 손을 잡고 팬덤 특화 혜택을 담은 PLCC ‘위버스 신한카드’를 선보였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결제금액의 3%를 배민포인트로 적립해주는 PLCC ‘배민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택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제휴사
의 충성고객을 유도하는 한편 라인 혜
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스타벅스 현
대카드의 경우 출시 3주 만에 5만장을
발급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제휴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용을 절감
하고 신용카드를 직접 출시하는 부담이
없어 양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업계에선 PLCC를
늘리고 일반 제휴카드를 줄이거나 단종
하는 추세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PLCC는 올해 들어서만 20종 넘게 출시
됐다. 반면 지난달 말 기준 전업 카드사
7곳에서 단종된 신용·체크 카드는 130
종에 달한다.

하반기 들어서도 PLCC 열풍은 여전
하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제휴사로 꼽혔던
유통사 외에도 MZ 세대가 선호하는
핀테크, 놀이시설, 카페 프랜차이
즈, 앤터테인먼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위버스컴퍼니
와 함께 PLCC를 출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자사 아이돌 그룹 4팀의 카드 4

종을 내놨다. 신한카드는 올해 ▲아케
아 ▲아모래퍼시픽 ▲SK렌터카 ▲GS
리테일 등과 협업한 PLCC 상품을 선보
였다.

현대카드는 올해 ▲쏘카 ▲무신사 ▲
제네시스카드 등을 출시했으며 롯데카
드는 ▲뱅크샐러드 ▲핀크 ▲교보문고
▲롯데월드 등과 제휴를 맺고 PLCC를
내놨다. 비씨카드는 올해 처음으로 PL
CC 대전에 참전, 지난 7월 ‘케이뱅크 심
플카드’를 출시했다.

이처럼 PLCC가 카드사의 새로운 돌
파구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휴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마
지 사태로 본 제휴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
성’을 통해 제휴업체 선정 경쟁이 심
화되면서 검증이 소홀해진 점을 지적했
다.

제휴 관계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불안
정하며 ▲시장예측 실패 ▲손실보상 책임
범위 ▲파트너와의 비대칭적 관계
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제휴업체의 재무건전성·기
술력·사업경쟁력을 검증함은 물론 타
업종·경쟁사·SNS 등을 통한 전방위적
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은 “이종업종과 협업이 증가하는 추
세로 향후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초기 계약 단계에서
부터 준법감시나 규제와 관련해 계약서
를 상세히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소완 기자 think@metroseoul.co.kr

신한금융, 기후행동 챔피언과 탄소중립 논의

국내 민간 금융회사 역할 논의
나이젤 토픽 “亞 국가 협력 핵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영국 고
위급 기후행동 챔피언(UK's High-Le
vel Climate Action Champion) 나이젤
토픽(Nigel Topping)과 만나 아시아지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하기 위해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 2명
을 임명하고 있다. 나이젤 토픽은 UNF
CCC가 선정한 챔피언 중 1명으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
OP26)에서 비정부 기관을 대표할 예정



15일 회의를 마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영국 기후행동 챔피언 나이젤 토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

15일 열린 회의는 신한금융의 탄소
중립 전략인 ‘제로카본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
다. 이후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기관
연합(GFANZ)의 탄소중립 은행 연합

(NZBA) 창립 서명 기관(Founding Si
gnatory)으로 참여한 신한금융의 역
할, COP26 관련 국내 금융기관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이어
졌다.

나이젤 토픽은 “COP26은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각국 정부뿐아
니라 민간의 협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
렵고,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
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2017년 그룹 회장 부임 이후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 쟁여 온 이
슈”라며 “앞으로도 기후금융 선진 그룹
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결고리 역
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들꽃청소년세상-금행넷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협약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등 마련

들꽃청소년세상(이하 들꽃)과 금융
과행복네트워크(이하 금행넷)가 후기
청소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
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청년들을 위
한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융복합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서 이
들의 안정적인 자립준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은 15일 “제도
권 내에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이들
에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맞춤형 교
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함으로써 후기청소년과 청년들의
자립을 돋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실태
조사와 금융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융
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단법인 들꽃(이사장 김현수)은 ‘청
소년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뜻을 갖고 27년 동안 청소년들이 주체
적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꿈꾸고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청소년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신장
하기 위해 국내외 청소년단체들과 교류
와 연대를 통해 희망을 가져다주는 활
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금행넷(이사장 정운영)은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경
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사회에 희망을 전하
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KB손보는 추석명절을 맞아 금융감
독원과 함께 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는 금감원, 한국구세군 및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을 통해 전통시
장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KB손보는 지난 2015년부터 지
속해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
네시장 장보기’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다. 서울 신사시장과 대구 대동
시장의 과일 등을 구입해 40여 개 사회
복지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신한라이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합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확산 도모

신한라이프도 보험업계의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탔다.

신한라이프는 ‘메타버스 얼라이언
스’에 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
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이 금
융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선포했다. 신한라이
프는 이에 따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와 경험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K-메타버

스 연합군’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신
한은행, 네이버랩스 등 가상융합기술
(XR) 수요 및 공급기업과 방송미디어
업계 3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해 메타버
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공동사
업 발굴 등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확
산을 도모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
반으로 한 창의적인 다양한 금융 서비
스를 개발한다. 가상환경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상용플랫폼
과 연계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자
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가상오피
스, 가상영업지점과 같이 근무환경 개
선에 활용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NH농협금융, 추석 전 IT비상운영체계 점검

비상근무체제 가동

NH농협금융지주가 추석 연휴를 앞
두고 IT비상운영체계를 점검했다.

농협금융은 농협생명 전산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직원을 격려했다
고 15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정
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사전점검과 집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 운영기간
중에는 주요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24시간
즉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할 예정이
다.

특히 농협생명은 추석 연휴 중 기존
서울시 목동에 위치한 전산시스템을 경
기도 의왕 NH통합IT센터로 이전하고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회의실에서 농협생명 전산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농협생명은 이 기간 중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림톡·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했으며 연휴 중 고객문의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멘트를 통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소완 기자